

강원도 농산물 유통 정책 방향

최 헌 영
강원도 농정산림국장

1. 序 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되는 수입개방의 압력과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업분야의 시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농용자재 가격이 크게 높아지고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많은 고통이 생산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의 이러한 고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중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과 이에 따른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무런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치 못한 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개방화·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유통개혁 등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업은 아직도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수준도 도시민과 비교해 볼때, 뒤떨어져 있는것이 오늘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특히 농산물은 수집과 분산과정이 광대한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며 부패·변질성이 강하고 생산출하는 계절적이고, 소비는 년중 일정하여 수급이 불안정 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농업인은 낮은 수취가격으로 소비자는 높은 지불가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농업인도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노력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 대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어민들도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과거 자급 자족·중산위주의 가족농업 형태의 틀속에서, 이제는 농산물도 일반 공산품과 같이 상품으로서 경쟁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이른바 무한경쟁의 거센 파도와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 힘을 합하여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 江原道の 農業與件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안전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의 정비로, 생산자인 농업인은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팔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일이 우리농정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농업여건은 도 전체면적의 82%가 산지이며, 이중 경지면적은 12만ha로서 논이 5만ha, 밭이 7만ha로 밭농사 위주의 영농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고별로는 100m이하가 5.6%, 100~500m가 43.1%, 500~1,000m가 43.6%, 1,000m 이상이 7.7%로, 고랭지가 많아 고랭지채소류 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68%정도를 점유하는, 고랭지채소류 생산의 주산지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지가 많아 생산기반 정비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어 생산기반 정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지형적인 특성으로 수송여건이 취약하고 영농규모의 영세성, 접적지역이 많은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제약받는 등의 요인으로, 강원도 평균 농가소득은 '97년말 기준으로 20,577천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 23,488천원에 비해 다소 낮은 상태이며, 강원도의 대표작물인 고랭지채소와 감자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재배확산으로 가격등락에 따른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농업여건이 아주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는 산지가 많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맑은 공기,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입지적인 유리성을 지니고 있는 청정농산물 생산적지로서 강원도 농업발전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궁무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도권 지향의 출하형태가 두드러진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소비자들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거래의 수도권 시장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앞으로 수송로 확장과 교통수단의 발달을 고려하면 강원도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커질것으로 생각합니다.

3. 江原道の 새 農漁村建設運動

우리도에서는 민선2기 도정출범과 함께 주체적 농정·혁신적 농정·실리적 농정 실현을 위한 유효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우리도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저공해 유기농산물 생산과, 고랭지 특성에 맞는 고랭지채소류·화훼 등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유통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면서, 아름다운 산천의 자연경관을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농업의 육성

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농어촌건설 운동을 농촌의 생존수단과 발전전략으로 삼아, 농촌·어촌 공히 정신·소득·환경분야 실천과제를 농어민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유도하면서, 농업기관·단체·학계가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가동 상호보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므로서, 살기좋은 새농어촌만들기 이념과 본질에 맞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실천덕목을 ① 21세기 농심실현하기, ② 농업상품 부가가치 높이기, ③ 질높은 농어촌환경 가꾸기로 설정한바

첫째, 21세기 農心실현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와 자기책임 의식이 굳건한 농업인, 경제적 위기극복과 경쟁력·자생력을 갖춘 농업인, 정보관리능력,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농업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상업의식을 가진 생산·가공·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강원농산품의 진품보장·효능입증·품질보증을 통해 강원도산 농업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상품의 부가가치 높이는 강원도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전역을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적합한 작목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육성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셋째, 질높은 농어촌가꾸기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개선을 병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경관 지역문화의 가치를 존중,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농어촌 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적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도 여건에 맞는 특성화전략 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강원도민의 이익과 강원도의 가치가 존중되는 농어촌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4. 우리道の 流通政策方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과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지유통시설의 개선 확충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은 유통의 물적기능을 강화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소비자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산지에서 선별·규격포장·저온저장·가공·판매 등 일련의 종합처리가 가능하도록, 농산물간이집하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청과

물종합처리장 등을 설치하여 산지의 수집 출하기능을 강화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산지 농수산물의 판로확보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산지에 설치된 집하장을 공판장화하여 산지경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이러한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전문조직으로 육성 생산·가공·저장·수송·판매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생산자조직이 시장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이러한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비 지방비 등 총439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 514개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개소, 청과물종합처리장 2개소 설치와 수송차량 146대를 지원하는 등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대도시 직판장 15개소, 국도변직판장 18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식품가공공장 51개소, 산지계열 가공공장 16개소, 농특산물 특산단지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통부분에 135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2004년까지 년차적으로 집하·저장·가공·포장부문을 보강,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산지유통시설에 이어 소비자 유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개설된 공영도매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전국에 14개소를 추가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 우리도에서는 춘천 농산물도매시장이 '96.9월 개장되어 운영중이며, 원주·강릉에 473억원을 투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중이고 평창군 용평면에 고랭지채소 산지도매시장을 '98. 10월 준공 금년 6월중 개장을 준비중에 있는 등, 공영도매시장 및 산지공판장 기능을 확충하여 가락동 시장으로 편중되어 있는 강원도 농산물을 도내 소비지와 연계하는 등 전국 공급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산지 지역농협의 합병을 농산물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실현기회로 활용하고, 시군별 농업기술센터 전담요원, 농협의 영농지도사 선도농가 등으로 영농지원단을 설치하여 품목별 유통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직판체제 확대를 위해 우편주문 판매제도의 정착,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상설직판장의 확대설치,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백화점 등에 강원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과, 정월대보름·추석 등 계절별 특별 전시판매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농산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대도시 소비층에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하여 수출대상국을 다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98년도 강원농수산품의 수출실적은 7,500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나 그 품목에 있어서는 백합·송이·돼지고기·김치·산채류·약초가공품·인삼·마죽 등 건강식품류와, 조미오징어·젓갈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그 확대 가능성이 해외식품박람회·시장조사단 파견을 통하여 실증되고 있습니다.

해외수출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 3월 일본국제식품박람회(동경)에 농수산식품을 출품전시한데 이어 4월에는 일본 중국지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820만달러의 계약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외특판전 개최·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도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고유상표(브랜드) 개발 및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우리 강원도 이미지에 걸맞는 청정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지역 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실시와 고유 브랜드의 개발로 얼굴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여 강원도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차별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우리도만의 심볼 캐릭터를 자체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산식품을 엄선하여 고유 브랜드를 45개업체 115개 품목에 부착토록 함으로서, 우리도 농산식품의 우수성을 부각 차별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출하를 위하여는 품목별 전문조직에 의한 공동출하와 규격출하를 확대해 나가야하는 바, 금년도에 도내 474작목반에 공동출하 촉진자금 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마토감자 등 37품목에 대하여 규격포장재 1,958만매를 지원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원오대쌀·치커리·토마토 등 고품질 농산물 58개품목이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참기름 젓갈 등 6개품목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 고품질 농특산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통정보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농림수산 유통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도매시장·농수축협 등 유관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농업관련 정보를 통해 농업인들 스스로 출하시기를 조정하도록하며 장기적으로는 재배면적까지도 조절토록 함으로서 농산물 가격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자체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 結 語

이상에서 우리도 농산물 유통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개관하여 설명하였지만, 유통문제는 행정의 주도와 지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행농업의 가장 병폐로 되어 있는 생산만이 농업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인식의 틀을 과감히 떨

쳐버리고, 생산 가공 유통 등 일련의 농기업적 사고를 지녀 생산에 쏟는 정열 못지 않게 유통 마케팅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닐때 가능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어업이 살아남고 농어업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농어민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자신감을 갖는 일입니다.

최근 정부의 유통정책도 매우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문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을 계속 찾아서 보완해 나가겠지만, 농어민 스스로도 생산에서 가공·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 갈때 오늘의 도전과 시련은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농업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통문제의 이정표를 제시할 오늘의 「농산물저장유통학회」도 바로 우리 모두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 농정 시행자로서 크나큰 고무와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이 농기업 체제로 위치를 확보하는, 농정개혁의 대열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